

법회 격려사

호국 동명사의 용감한 불자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평화의 최전선에서 부처님을 마음에 담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 여러분을 만나게 된 인연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아울러, 세계 평화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의 나라 스리랑카 장병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레바논은 정치적으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종교적 화합의 모습은 중동의 여느 나라와 참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극단적 종교 정치적 성향을 지닌 단체에 의해 세계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곳곳하게 대화와 화합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곳에 자랑스러운 동명부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 한 가운데에 불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한국불교 대표자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불자 장병 여러분, 자비의 정신으로 남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해가 바로 이 곳 중동에 또 다른 평화의 꽃씨를 남기는 일임을 마음에 간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승범망경」의 말씀중에 "어머니가 하나 뿐인 외아들을 생명을 걸고 보호하듯, 일체의 생물에 대해서도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못 다른 생명을 대하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인연이 다르다고 여겼던 레바논의 이웃을 소중한 인연으로서 마음까지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여한 마음이 여러분을 평화와 안녕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법회 시간이 한국불교가 1700여 동안 자리하게 된 근본적인 힘을 전달

하고 스스로를 차분하게 돌아보는 시간으로 회향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을 만나고, 더없는 불제자의 관계로 다시 뵙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2015)년 3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